

일본 방언사전의 경위와 의의

양민호

성결대학교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

1. 서론

한 국가의 언어사전을 편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국어사전조차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집필하는데 지역의 말, 즉 방언에 관한 사전을 편찬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고 고된 일이다. 몇 년 전 개봉한 영화 <행복한 사전>의 원작 소설 《배를 엮다(船を編む)》의 내용 중에 ‘사전은 언어의 바다를 건너는 배이며, 편집자는 그 바다를 건너는 배를 엮어가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많은 어휘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정리해 가며 사전을 엮어가는 작업이야말로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를 보여 준다.

방언사전은 많은 지역 언어 조사와 문헌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 방언의 역사는 일본어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방언 연구를 살펴보기에 앞서 일본어의 역사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일본어 역사를 이해하면서 시대별로 등장했던 방언에 대한 언급과 그것이 실려 있던 문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 최근의 방언 자료와 방언사전에 대해서 언급하고 왜 방언 자료와 사전들이 필요한지, 왜 지역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도록 하겠다.

2. 본론

2.1. 일본 방언 자료의 역사적 경위

한 국가의 언어는 음운, 어휘, 문법, 담화 등 모든 면에서 지역별 방언 차이가 있기에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하거나 여행을 할 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일본어의 방언은 크게 ‘본토(本土) 방언’과 ‘류큐(琉球) 방언’으로 나뉘며, 이것은 다시 세분화할 수 있다. 메이지(明治) 시대 이후 도쿄(東京) 방언을 중심으로 표준어 확립과 보급이 진행되어 지방의 방언은 표준어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파악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표준어와 방언의 공생을 시도하였지만 실제로 지역의 전통 방언은 급속히 쇠퇴하게 되었다. 과거, ‘방언’은 예를 들어 표준어인 ‘오모시로이(おもしろい, 재미있다)’의 방언형인 ‘오모로이(オモロイ)’와 같이 각 지방 특유의 어휘, 표현, 억양, 발음 등의 차이만을 가리켰으나, 현재의 언어학에서는 악센트 음운·문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그 지역 사회의 언어 체계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쿄라는 한 지역의 일본어, 즉 ‘도쿄 방언’도 당연히 존재한다. 표준어·공통어 및 그 기반이 되는 도쿄 방언에 대해 다른 방언은 여전히 ‘교양 없는 촌스러운 말’이라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특정 방언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존재한다. 이러한 지역적 말, 즉 방언이 근대 이전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았으며 어떠한 형태로 문헌에 남겨져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겠다.

2.1.1. 근대 이전의 방언

일본어에 방언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상대 시대 이전부터이다. 《万葉集(만요슈)》 권14 ‘아즈마우타(東歌)’와 권20 ‘사키모리노우타(防人歌)’에는 당시의 아즈마노쿠니(東國) 방언에 의한 노래가 기록되어 있다. 또

820년경 ‘도다이지 후주문(東大寺 諷誦文)’에는 ‘에조 방언(毛人方言), 히다 방언(飛驒方言), 아즈마노쿠니 방언(東國方言)’이라는 부연 설명이 있다. 이것이 일본 내 문헌에서 사용된 ‘방언’이라는 단어의 가장 오래된 예이며, 헤이안(平安) 시대 초기 중앙의 방언에 대한 입장을 엿볼 수 귀중한 기록이다.

헤이안 시대부터 가마쿠라(鎌倉) 시대에 걸쳐서는 중앙부의 문화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에 방언에 관한 기술은 단편적인 것에 그쳤다. 그러나 무로마치(室町) 시대, 특히 전국(戰國) 시대에는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중앙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지방의 힘이 강해진 결과, 지방 문헌에 방언을 반영한 내용이 자주 나타나게 되었다. 아즈마노쿠니(東國) 계열 문헌에서 많이 보이며 고문 서류에도 종종 방언형으로 등장하게 된다. 아즈치모모야마(安土桃山) 시대부터 에도(江戸) 시대 초기에 걸쳐서는 포르투갈 선교사가 많은 기독교 자료를 남기면서 그 안에 각지의 방언을 기록한 것이 많다. 주로 교토(京都) 말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서도 규슈(九州) 방언을 다수 수집하여 병기한 《일포사전(日葡辭書)》¹⁾(1603-1604)과 지쿠젠(筑前)과 비젠(備前) 지역 방언의 언어적 특징을 담은 《일본대문전(日本大文典)》(1604-1608)이 대표적인 예이다. 예수회의 선교사로 일본을 찾은 포르투갈 사람 로드리게스(1561-1634)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통역을 맡을 정도로 일본어가 능숙하여 《일본대문전》을 정리했는데, 이것은 외국인이 만든 최초의 일본어 문법책이며, 그 안에 방언형 설명이 존재하였다.

이 시기에는 류큐 방언 자료도 등장한다. 초기 단계의 자료에 속하는 것으로는 중국 문서의 ‘류큐관역어(琉球館譯語)’가 류큐(琉球) 지역의 말

1) 《일포사전(日葡辭書, Vocabulário da Língua de Iapam)》이란 일본 예수회가 나가사키(長崎) 가쿠린(學林)에서 1603년에 간행한 일본어·포르투갈어 사전이다. 다음 해에 보완·간행 하였고, 포르투갈식 로마자로 일본어 표제어를 제시하고 포르투갈어로 설명을 붙였다. 예문에 당시의 표준어인 교토 말(京都語)과 규슈(九州) 방언의 차이에도 주목하였으며, 가어(歌語)·문어(文語) 등에도 주를 달았다. 총 어휘 수가 32,293개에 달한다.

을 음역으로 표기하여 기록하고 있다. 1609년 시마즈(島津) 침공 사건으로 류큐 왕국을 지배하였던 사츠마(薩摩) 번(藩) 기록에도 류큐의 말이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방언의 자료로 볼 때 류큐 제도에 전해지는 고대 가요 우무이(ウムイ)를 모은 《오모로소시(おもろそうし)》(1531-1623)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타 지역의 방언 모음집 자료를 압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나라(奈良) 시대부터 막부(幕府)가 성립될 때까지 긴키(近畿) 지방 방언이 중앙어의 지위에 올랐다. 도쿠가와(徳川) 가문 이후에는 에도(江戸)로 중심이 옮겨져 문화가 꽃피게 되며 에도 말의 지위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메이지(明治) 시대에는 도쿄(東京)의 말이 일본어의 표준어로 간주되었다.

2.1.2. 근대 이후

메이지 정부 성립 이후에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전국적인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말의 통일과 표준화가 거세게 요구되었다. 학교 교육에서도 ‘도쿄의 중류 사회’ 말이 사용되었으며 방송에서도 ‘공통어’ 사용이 중심이 되었다. 이렇듯 표준어 규범의식이 확립됨에 따라 방언을 교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으며, 이자와 슈지(伊澤修二)는 교원을 위한 책을 만들어 도호쿠(東北) 방언 교정법을 설명하였다. 심지어 지방 학교에서는 방언을 말한 사람 목에 ‘방언 꼬리표’를 걸게 하는 등의 벌칙까지 있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 방언 자료를 남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성장과 함께 지방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시작되면서 표준어와 방언의 알력 싸움이 나타났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1950년대 후반, 표준어 화자들이 지방 출신들의 말투를 조롱하고 비웃어 지방 출신들이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방언 교정 교육도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운동은 전국적

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정치 및 경제적 고도성장 이후 방언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반의 설문조사에서는 ‘방언을 후세에 남겨 두고 싶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90% 이상에 달한다는 결과까지 나왔다. 방언의 공통어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이른바 ‘방언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방언을 소중히 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0년대 이후에는 젊은이들이 언어유희 감각으로 방언을 사용하게 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1995년에는 랩 ‘DA.YO.NE’를 간사이(關西) 버전 ‘SO.YA.NA’로 개사하여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수도권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청년들 사이에서도 간사이 방언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도쿄의 여고생들 사이에서도 방언을 섞어 말하는 것이 유행하여 여고생을 위한 방언 참고서와 사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젊은이들의 지역 말과 지역 신조어 등이 도쿄로 거꾸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일본 내에서 방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각 지역 방언을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움직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국립국어연구소 설립과 동시에 많은 방언 조사 사업을 진행하면서부터였다.

2.2. 구체화된 방언 관련 자료 및 사전

2.2.1. 일본언어지도

‘일본언어지도’는 전국 각지의 방언이 지역에 따라 어떤 억양과 발음으로 나타나는지를 항목별로 표시한 지도로서, ‘언어지도’ 또는 ‘방언지도’라고 불리는 간행물이다. 실제로 지도화된 방언 자료집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전국 방언의 지리적 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일본의 방언에 관한 기초 자료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 국립국어연구소가 편집하고 1966년부터 1974년에 걸쳐 간행되었다. 이를 간단히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언어지도(日本言語地圖)’ 총 6권, 각 권 50장의 지도, 총 300장의 지도

- 편집: 국립국어연구소
 - 발행처: 대장성(오오쿠라쇼) 인쇄국
 - 발행: 1966년-1974년(축쇄판: 1981년-1985년)
 - 조사 내용: ‘일본언어지도’는 언어지리학적 방법에 의해 현대 일본 표준어의 성립 과정 및 다양한 방언 어형의 역사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작성되었으며 각 권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 ‘일본언어지도’ 제1집 언어지도(50) 참고지도(1장)
음성·형용사 등에 관한 항목, 조사 지점 번호지도
 - ‘일본언어지도’ 제2집 언어지도(50) 참고지도(1장)
주로 동사에 대한 항목 지세도(地勢図)
 - ‘일본언어지도’ 제3집 언어지도(50) 참고지도(1장)
명사에 관한 항목(사람·인체·유희 등), 인구 도표
 - ‘일본언어지도’ 제4집 언어지도(50) 참고지도(1장)
명사에 관한 항목(가옥, 도구, 곡물, 야채 등), 산업도
 - ‘일본언어지도’ 제5집 언어지도(50) 참고지도(1장)
명사에 관한 항목(동물, 식물) 현대 도로지도
 - ‘일본언어지도’ 제6집 언어지도(50) 참고지도(1장)
명사에 관한 항목(자연, 일시 등) 및 전권에 걸친 보충지도와 근세 번령도(藩領圖)(1664년)

일본언어지도가 어휘 중심의 방언 분포 자료였다면 다음에 설명할 ‘방언 문법 전국지도’는 문법에 따른 방언 차이에 착안하였다.

2.2.2. 방언문법 전국지도

‘방언문법 전국지도(方言文法全國地圖)’는 문법 항목의 전국적인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언어지도(방언지도)이다. 방언 연구의 기본 자료이며, 국립국어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각지에 거주하는 방언 연구자 93명의 협력을 얻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1979년부터 1982년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는 국립국어연구소가 편집한 ‘방언문법 전국지도’로 1989년부터 2006년에 걸쳐 간행되었다. 그 구성을 간단히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방언문법 전국지도’ 전 6권, 350장

국립국어연구소에서는 1989년부터 2006년에 걸쳐 간행된 ‘방언문법 전국지도’의 지도 이미지를 피디에프(PDF)의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 편집: 국립국어연구소
- 발행처: 재무성 인쇄국
- 발행: 1989년-2006년
- 조사 내용 및 각 권의 해설: ‘방언문법 전국지도’는 문법 현상의 전국 분포를 전망하고 언어지리학적으로 해명하며, 문헌 연구에 의한 일본어의 역사와 방언 분포와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이다. 전국 807지점에서 문법 현상에 관한 267항목에 대해 그 지역의 토박이 장년층 남성 제보자들을 직접 면접 조사하였으며 각 권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방언문법 전국지도’ 제1집 조사 편, 문법지도(60장), 조사 지점 번호 지도
 - ‘방언문법 전국지도’ 제2집 활용 편 1, 문법지도(45장), 투시용 조사 지점 번호지도

- － ‘방언문법 전국지도’ 제3집 활용 편 2, 문법지도(45장)
- － ‘방언문법 전국지도’ 제4집 표현법 편 1, 문법지도(55장), 조사 지점 번호지도(4~6집)
- － ‘방언문법 전국지도’ 제5집 표현법 편 2, 문법지도(65장), 투시용 조사 지점 번호 지도(4~6집)
- － ‘방언문법 전국지도’ 제6집 표현법 편 3(대우표현), 문법지도(80장)

지금까지 소개한 방언 관련 두 자료는 일본의 ‘국립국어연구소’라는 국가 연구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2.2.3.에서는 개별 방언 연구자에 의해 만들어진 방언사전 중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2.2.3. 일본방언대사전

《일본방언대사전(日本方言大辭典)》은 근세부터 현대까지 1,000개 이상의 방언 자료(각 지역의 방언집 등)에서 20만 개에 달하는 어휘를 채록 하였고 방언 자료 번호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명실공히 방언 어휘의 집대성 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전으로 이 방언사전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사토 료이치(佐藤亮一) 감수

쇼각칸(小學館) 사전 편집부 감수

편집 위원: 도쿠가와 무네마사(徳川宗賢)

- － 풍부한 ‘문헌 예’를 통한 상세한 해설

지역 이름이나 실제 사용 예를 비롯한 해설과 더불어 방언이 문헌 중에 나타난 예를 ‘문헌 예’로 소개하고 있으며 역사적 배경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 방언의 전국적 분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분포 지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말투가 비슷한 방언은 같은 항목으로 정리하여 방언형의 변천과 지리적 분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편집하였으며, 동시에 시각적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언 분포 지도 178장을 수록하였다.

－ 표준어로 찾을 수 있는 색인 포함
별책으로 ‘표준어 조회 색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만들었다. 또 표제어는 일반 어휘 이외에도 동물·식물·조류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민속어 관련 항목을 선별하여 수십 종류로 나누어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각 지역의 음운 상태를 알 수 있는 ‘방언 음운 총람’
표준어 음절이 각 지역의 방언과 어떻게 대응되고 있는지를 일람할 수 있도록 ‘방언 음운 총람’을 사전 후반부에 게재하였다.

《표준어 검색 일본방언사전(標準語引き 日本方言辭典)》은 《일본방언대사전》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핸드북 형태로 만든 사전이다. 방언을 표준어로 쉽게 검색할 수 있고, 각각의 표준어 표제어에 해당하는 방언과 그 방언이 사용되고 있는 지역명을 표준어로 찾을 수 있다. 약 3,600개인 표준어 표제어는 오십음도 순으로 배열되었으며, 방언 수집은 홋카이도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 1,000개 이상의 지역 방언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그 단어 수는 총 15만 항목에 달하며 방언의 다양성에 압도된다. 예를 들어, ‘오카상(おかさん, 어머니)’, ‘하하(はは, 어머니)’를 나타내는 방언이 일본 전국에서 350개 말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록 중 ‘도도부현별 방언 개요’에서는 전국 47개 도도부현별 방언의 구분법과 어휘·문법·발음 등의 특징을 알 수 있다. 《표준어 검색 일본방언사전》은 지역어의 풍요로

음, 따뜻함, 아름다움을 재확인할 수 있는 핸드북 사전으로, 다양한 연령층을 공략하여 만든 방언사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연구기관 그리고 연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방언 자료나 사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간 축적해 온 방대한 지역 자료가 있기 때문이다. 방대한 지역 자료가 구축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지역 방언 연구가 착실히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3.에서는 이러한 축적된 일본 방언 연구 조사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방언 자료 보존의 의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2.3. 일본의 방언 연구

일본의 방언 연구는 지역 조사 연구에서 그 시작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를 주도적으로 이끈 곳이 국립국어연구소이다. 현재에도 많은 연구가 이 기관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약 70년의 역사를 가진 연구소가 실시한 방언학적 조사 연구를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낼 수 있다.

표 1 일본 국립국어연구소가 실시한 방언학적 조사 연구

	명칭/조사 지점	주요 주제	실시 연도
1	하치조 섬(八丈島) 조사/도쿄 도 하치조 섬	공통어화	1949
2	시라카와(白河) 조사/후쿠시마 현 시라카와 시	공통어화	1949
3	쓰루오카(鶴岡) 조사/야마가타 현 쓰루오카 시	공통어화	1950/1971/ 1991/2011
4	우에노(上野) 조사/미에 현 우에노 시(현재 이가 시)	경어	1952
5	오카자키(岡崎) 조사/아이치 현 오카자키 시	경어	1953/1972/ 2008
6	홋카이도(北海道) 조사/홋카이도 후라노 시, 삿포로 시	공통어화	1958/ 1986-1987
7	나가오카(長岡) 조사/니이가타 현 나가오카 시	언어생활 연구	1962
8	마쓰에(松江) 조사/시마네 현 마쓰에 시	언어생활 연구	1963
9	대도시 조사/도쿄 도 23구, 오사카 시	언어생활 연구	1974-1975
10	장면 차이 조사/도요나카 시, 미야쓰 시, 도요오카 시, 미야즈 시, 도요오카 시	언어생활 연구	1983-1984

위의 표에서 세 번째로 언급된 ‘쓰루오카(鶴岡) 조사’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일본의 방언 연구 업적이다. 쓰루오카 조사는 1950년 첫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20년 주기로 총 4회의 조사가 행해졌다. 처음에는 방언의 공통어화 현상을 살피기 위한 조사였지만, 3차(1991년) 조사에서는 공통어가 거의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4차 조사에서는 기존의 조사 항목에 사회 방언적 요소를 추가하였고, 지역 방언의 보존적 측면에서 조사 대상자의 의식에 있는 그 지역의 방언을 흉내 낼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4차 조사에서는, 예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우선 쓰루오카 방언의 특징을 조사하고 기술(記述)에 힘썼다. 조사 질문은 크게 네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하위 분류 항목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음성: 순음화, 구개음화, 유성화, 비음화, 중설모음화, 악센트
- 어휘: 부사, 외래어 등
- 문법: 명령형, 접속조사 부분
- 기타: 언어 의식 및 조사 대상자 속성

이와 같은 일본의 지역방언 연구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도 쓰루오카 시와 같이 추적 조사가 전제된 방언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언어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사이다.

언어생활 실태와 언어 변화 모델을 밝히기 위하여 국립국어연구소는 1948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 중 하나는 일본 전국 각지의 언어생활의 실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었다. 설립 이듬해인 1949년에는 후쿠시마(福島)현 시라카와(白河) 시를 모델 지역으로 선택하여 언어생활 실태 조사를 통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거기서 얻어진 연구 결과가 일본의 다른 지역에도 들어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1950년 무작위 추출 표본으로 쓰루오카 시를 대표로 선택하여 조사하게 된 것이다. 이후 1971년 2차 조사, 1991년 3차 조사, 2011년 4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 때 10대였던 사람이 2차 조사 때는 30대가 되어 있었으며, 3차 조사 때는 50대, 4차 조사 때는 70대가 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60년 동안 동일 지역 방언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언어 변화 과정 해명에 도움이 되었다. 이와 같이 방언과 공통어라는 주제로 60년간 계속된 조사는 언어 연구의 세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학문의 연구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최장’의 추적 조사이다. 이와 같이 한 지역의 방언이 기술되고 지역 방언 조사가 이루어져야 방언 관련 자료집 또는 사전 등이 완성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3. 결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본어 역사 속에서 시대별로 등장했던 방언에 대한 언급과 그것이 실려 있던 문헌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일본언어지도’와 ‘일본 방언문법 전국지도’에 대한 개관을 살펴보았다. 최근에 만들어진 《일본방언대사전》은 위에서 언급한 방언 자료를 기본으로 독자들이 방언을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방언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꾸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일본의 대표적 방언 조사 연구인 쓰루오카 조사를 통하여 앞으로 방언 연구가 왜 필요한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일본 방언학 분야는 공통어의 확립과 방언 규범에 관한 연구가 활발했던 시기였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방언 연구는 그러한 관점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대를 품미했던 지역 방언의 문헌과 자료를 찾아 치밀하게 기술함으로써 그 방언

의 역사적 의의를 찾기도 한다. 도호쿠 계센(氣仙) 지방의 의사이면서 방언 연구자인 야마우라(山浦) 선생은 자신의 방언에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의 방언을 널리 알리고 싶어 계센 지역 방언 연구를 시작하였다. 수십 년간에 걸쳐 만들어진 사전이 《계센어(ヶセン語) 사전》이며 이는 지역 사회 언어 조사 및 자료를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방언에 대한 자료의 보존과 계승을 각 지역에서 이어나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기관인 국립국어연구소를 통한 방언 연구 및 방언 자료 구축 등의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언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향후 한국에서도 국가 기관이나 개별 연구자에 관계없이 지역 방언 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간다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방언 자료가 한데 모아질 것이며, 이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기술해 나간다면 방대하면서 의미 있는 한국의 방언사전이 탄생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고 문헌

- 고바야시 다카시(2010), “지역어 조사·보존의 외국 사례 - 일본의 경우-”,
《새국어생활》 20-3, 국립국어원, 57-72쪽.
- 양민호(2016), “방언 연구가 나아갈 방향”, 《새국어생활》 26-1, 국립국어원,
65-77쪽.
- 양민호 외(2015), 《대도시 지역사회 방언 조사》,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이노우에 후미오 저, 김덕호 외 역(2015), 《경제언어학 언어, 방언, 경어》, 역락.
- 정승철 외(2014), 《방언의 조사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小林隆(2004), アクセサリーとしての現代方言, 《社會言語科學》, 第7卷 第1号,
105-107쪽.
- 木部暢子(2015), 方言研究の過去・現在・未来, 日本方言研究會第100回研究
發表會, 創立50周年記念企画 記念シンポジウム予稿集.
- 佐藤亮一 監修(2002), 小學館辭典編集部(編)《お國ことばを知る方言の
地図帳》 新版, 小學館.
- 田中ゆかり(2011), 《「方言コスプレ」の時代》, 岩波書店.
- 徳川宗賢 編(1979), 《日本の方言地図》, 中公新書, 中央公論社.
- <https://ja.wikipedia.org/wiki/%E6%97%A5%E6%9C%AC%E8%AA%9E%E3%81%AE%E6%96%B9%E8%A8%80/>.
- <http://www2.ninjal.ac.jp/keinen/turuoka/outline.html/>.